

# 옛날엔 손목이 부러져도 병원 못 가고, 아파서 토하면서 일했죠

- 형틀목수 박상인 님 인터뷰

손가영 선전위원

‘동포 이주민으로 일하는 건설 현장은 어 떠냐’는 말에 24년 차 형틀목수 박상인(가 명·50대) 씨가 말했다. 그는 “옛날엔 외줄 을 탔다”면서 “업체가 돈 아끼려고 아시바 (죽장)에 발판도 안 깔아서 그냥 봉 타고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한 10년 전부터 많이 바뀐 것 같다.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있다”며 “당장 일을 하는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 많이 줄었다. 물론 다 큰 현장(대기업 발주 현장)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 24년차 형틀목수 되기까지

박씨는 1998년 산업연수생으로 처음 입국한 후 한국에서 결혼하며 쪽 정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다. 2000년부터 형틀목수로 일했다. 형틀목수는 말 그대로 ‘건물의 틀을 짜는 기술자’다. 건물의 기둥과 벽, 바닥을 콘크리트로 채울 때, 이 액체 콘

크리트를 부을 거푸집(틀거리)을 일일이 설치하고 해체한다. 거푸집은 고중량의 목재, 합판 등을 하나씩 이어 완성한다. 박씨는 “일의 80%가 망치질이고, 나머지는 톱질, 자재 운반”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의 외피’보다 다른 문제를 더 강조했다. 먼저 ‘정주할 권리’다. 박씨도 결혼 후 영주권을 얻고서야 비로소 삶이 안전해졌다. 그는 15년 전 크게 다쳐 아직도 잘 쓰지 못하는 손목을 이야기했다. 당시 박씨의 입국 경로였던 산업연수생 제도는 평균 60여만 원의 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문제로 ‘현대판 노예제’라 불렸다. 브로커를 통해야 해서 빚을 지고 연수생으로 입국했던 그는 팍팍한 삶을 견딜 수가 없어 사업장을 뛰쳐나왔고, 그 길로 미등록 신분이 됐다. 건설 일을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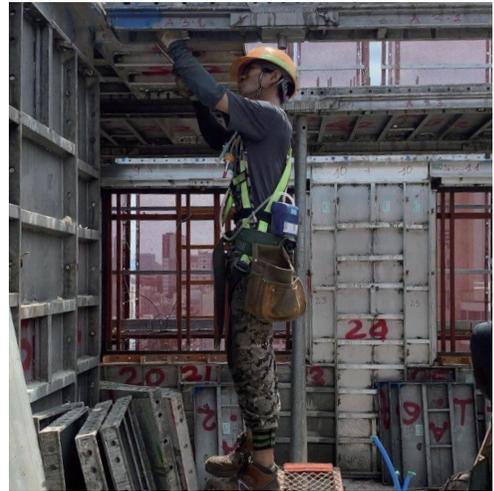
“손목뼈가 부러진 줄도 몰랐어요. 5년 정도 불법(미등록)이었는데, 합법(영주권자)

이 되고 나서 처음 병원에 갔어요. 근데 딱 의사가 하는 말이 ‘왼쪽 손목이 부러졌었네요?’ 하는 거라. 근데 좀 뼈딱하게 뼈가 붙었대. ‘아니, 안 아팠어요?’하고 묻데요. 그때 너무 아파서 토하면서 일했어요. 근데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붕대 감고 계속 망치질했어요. 빛이 있어서. 지금 망치질할 때 왼손을 짚은 못 써요. 자재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망치질 진동으로 올리면 많이 아파요.”

### 지금도 계속되는 임금 차별, 노조탄압으로 악화돼

임금체불과 더불어 임금 차별도 만연하다. 박씨는 이주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으로 “임금차별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했다. 박씨는 최근에도 임금차별 피해를 보았다. 같은 일을 했음에도, 업체가 한국인에겐 일당 24만 원을, 본인에겐 23만 원을 줬다. 한 달 급여로 치면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노조에 도움을 청해 차액을 받았다. 그는 “일도 더 많이 하고, 경력도 오래됐는데 참화가 나는 문제”라며 “이건 정말 오래된 문제고 지금도 여전하다”고 했다.

박씨는 “임금 문제가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다시 나빠지고 있다”라고도 했다. 현 정부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 기조를 암시하며 “정부가 더 못 받게 하는데요, 밀” 하면서 웃었다. 대부분의 건설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 박씨는 “그래도 노조가 있어서 형틀목수는 25만 원(시중노임단가는 27만 원)으



▲ 건설노동자 박상인 씨는 미등록이주민 시절 손목 뼈가 부러진지도 모르고 일하기도 했다. 사진 : 한노보연

로 선을 정해놨는데, 요새는 이 값도 못 받고, 잔업수당도 안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노조 힘이 약해지니 더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형틀목수는 닳는 연골이 많다. 하루 수백 번의 망치질부터 개당 20~30kg인 자재를 하루 수십 ~ 수백 번 나르고, 그 자재를 위로 들어 지탱하며 못질도 해야 한다. 박씨도 어깨 연골이 다 닳아 수술을 받는 동료들, 무릎·허리 관절로 병원을 들락거리는 동료들을 일상으로 봤다. 박씨는 “지금은 기중기가 자재를 운반해 주지만, 예전엔 한 손에 60kg씩, 120kg 자재를 들고 수십번 오르내렸다”며 “그땐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환경이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다”며, 근본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대신 “오야지(반장) 없이 그냥 회사가 바로 단가 쳐주고(보장하고) 바로 임금하는 그런 구조라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터**